

누가 부업을 하는가

2022. 6. 30

성인지데이터센터 임연규 연구원

- 1)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하여 부업을 파악함. 임시휴직자를 제외한 취업자의 부업에 한하여 알아볼 수 있으며 임금직이 주업이거나 부업인 경우만 파악가능
- 2) 여성, 고령층, 임시일용직, 자영업자과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부업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보이며, 시기상으로는 경제위기 후 회복기에 부업비율이 증가하는 양상
- 3)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의 경우, 일용직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이들은 부업보다는 안정된 노동환경을 원하는 경향으로 읽힘
- 4) 최근 N잡러로 표현되는 부업양상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듯하나 현재의 통계로는 파악하기 어려움
- 5)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는 현재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및 기초자료로 쓰일 실태조사를 필요로 함

I. 서론

부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부응하는 통계 및 정책은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음.

- ‘N잡러’, ‘제2의 파이프라인 구축’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현상에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기존의 근로소득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취업자가 증가하는 한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됨에 따라 부업시장은 활발해진 것으로 보임
 - 많은 매체에서 부업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부업이 얼마나 큰 관심사인지 보도하고 있지만, 부업시장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피지 않은 채 흥밋거리로만 다루지고 있음
- 본고에서는 부업열풍이 특정집단에게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유행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부업이 어떤 의미에서 조사되어왔으며 해석될 수 있는지, 나아가 어떠한 방향으로 조사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
 - 더불어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를 파악하여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함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하여 부업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 부업(副業)은 본업에 대비되는 말로, 주로 행하고 있는 일 외에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갖는 직업을 의미
 - 이를 통계적으로 주업과 부업을 구분해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개념을 차용할 수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주간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경우, 취업시간이 가장 긴 직업을 주업(주된 일자리, Main job)으로, 주업 외의 일을 부업(다른 일, Secondary jobs)로 간주함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서도 부업규모 및 부업시간만을 살펴볼 수 있고, 부업하는 사람들의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등과 더불어 인적속성별 차원에서 경제활동상태 및 주업속성별로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음¹⁾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노동시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경제활동인구비율, 고용률, 실업률 등을 산출하고 근로자들의 주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알아보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주업의 속성에 대하여만 조사하고 부업의 속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는 않음
 - 노동패널조사와 같이 직업력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가졌던 직업 전반에 대해 모두 조사하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주된 일자리와 부업을 선별하여 부업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국한하여 분석하였음

1)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정성미(2017), 임용빈·최형재(2017)의 연구가 있음

[표 1] 경제활동인구조사상 부업의 판단기준

<p> 주된 일(주업)과 다른 일(부업)의 판단</p> <p>조사대상 주간의 취업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일한 것을 주된 일(주업)로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일(Main job, 주업) : 주된 직업(일), 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일하는 장소와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는 모든 일을 포함하여 주된 일 한가지만을 하는 것으로 봄 예) 가사서비스 종사자, 건설현장 일용자 · 다른 일(Secondary jobs, 부업) : 본업 외에 따로 가지는 직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가지 이상의 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 예) 낮에는 기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주업)하고 퇴근 후 다단계판매 등 네트워크 마케팅업체(암웨이, 엘트웰 등) 일(부업)을 함 <p>출처 : 통계청,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p4.</p>

9 지난주에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p>주업과 부업</p> <p>두 가지 이상의 일, 소위 복수직업(two jobs)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일(주업) : 수입을 목적으로 주로 하는 일로서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시간이 가장 많은 일 · 다른 일(부업) : 주된 일 이외에 따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예1) 주부가 가사일을 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아르바이트가 주된 일이며, 『<input checked="" type="checkbox"/>부업여부』 「2.없었음」에 해당</p> <p>예2) 학생이 통학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 아르바이트가 주된 일이며, 『<input checked="" type="checkbox"/>부업여부』 「2.없었음」에 해당</p> <p>예3) 교사가 방학 중에 수입이 있는 일을 별도로 한 경우 ⇒ 취업시간을 기준으로 주된 일을 판단하므로 『<input checked="" type="checkbox"/>부업여부』 「2.없었음」에 응답하고, 수입이 있는 일만 취업시간을 파악함</p> </div> <p>지난주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한 사람은 「1. 있었음」에 해당되며, 실제로 취업시간이 있는 경우만 인정되므로 일시휴직자는 해당되지 않음</p> <p>다음의 사례에서 주된 일(주업)과 다른 일(부업)을 구분하는데 유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임금근로 형태로만 2가지 이상 일한 경우 부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 여러 가지 일 중 적어도 1개 이상 임금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에만 주업, 부업을 구분함 ☞ 매일 일하는 장소 또는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 2가지 이상의 일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음 (예) 가사도우미, 건설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 등 <p>출처 : 통계청,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p22.</p>
--

불황시의 부업이 갖는 의미와 현행 조사를 통한 파악시 한계가 존재함

-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가 추가로 일을 더 한다는 것을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두 가지 상황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음
 - 첫 번째로는 인력에 대한 수요 대비 노동자가 부족하여 일자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자들이 추가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어야하는 호황인 경우
 - 두 번째로는 노동자가 주업의 소득으로는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워져 추가 소득을 위해 또 다른 일자리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불황인 경우
- 부업을 조사할 때의 한계
 - 불황일 때 원래 하던 주업을 잠시 중단하고 일시적으로 부업을 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조사상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다시 정의를 내리게 된다면, 실제로 가장 긴 근로시간을 갖게되는 부업을 주업으로 판단하게 됨
 - 불황시 부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기존의 부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퇴출되어 부업의 규모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함
 - 조사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초점을 두고 있어 비임금근로형태로만 2가지 이상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이는 최근의 부업시장을 잘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님

부업 허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지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음

- 최근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부업의 범위, 통계 등에 관한 필요가 증가함.
 - 한국의 노동시장 맥락 차원에서 살펴보면,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일자리에만 종사하는 관행이 있어왔고, 일부 직종에서는 겸업을 금지하여 구조적으로 부업을 할 수 없는 집단들이 존재해왔음
-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이 더 유연하여 일찍이 높은 수준의 부업비율을 보이며, 우리나라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임
 - 미국의 부업비율은 2009년 금융위기 전에는 5.2% 수준에서 2014년까지 4.9%까지 감소하였으나 2015년 이후 증가해 2019년 5.1%까지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4.5%로 하락함. 성별로 확인하면 여성의 부업비율이 더 높음

[표 2] 미국의 성별 부업비율

성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5.61	5.62	5.63	5.56	5.65	5.40	5.33	5.21	5.21	5.29	5.28	5.48	5.28	5.38	5.57	4.93	4.96
남성	5.06	4.93	4.92	4.97	4.79	4.53	4.56	4.57	4.58	4.53	4.52	4.53	4.61	4.64	4.68	4.14	4.26
전체	5.33	5.24	5.25	5.24	5.20	4.94	4.92	4.88	4.86	4.89	4.88	4.98	4.92	4.99	5.12	4.50	4.60

주 : 각 년도별로 월별자료의 평균을 구하여 산출한 값임.

출처 : Economic Research Division, <https://fred.stlouisfed.org/series/LNU02026620>(전체)
<https://fred.stlouisfed.org/series/LNU02026624>(여성),
<https://fred.stlouisfed.org/series/LNU02026622>(남성) (2022.5.30. 인출)

- 일본은 노동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참여인구의 부족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2017년 6월에 부업 및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 모범규칙’을 개정함²⁾
 - 기존 규칙에는 종신고용을 보장받는 반면, 부업 및 겸업이 금지되었었음
 - 2017년 6월 개정을 통하여 부업 및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
 - 2018년 1월 개정에서는 기업이 부업 및 겸업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여 부업 및 겸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음
- 우리나라도 향후 일본과 같은 노동인구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의 구조가 변화함으로써 채용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어 노동정책 및 노동통계도 이에 대하여 부응할 필요가 있음

부업을 하는 취업자와 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의 특성 파악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

- 본고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부업을 하는 취업자 및 향후 부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의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고, 향후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부업을 하는 취업자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일시휴직자를 제외한 취업자 중 부업여부를 기준으로 집단별로 나누고 비율을 산출하여 분석
 - 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전체 취업자에서 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의 비율을 산출하여 분석
 -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취약계층이 소득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로 일을 더 했을 가능성이 있음

[표 3] 취업자와 일시휴직자 추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 자 (천명)	취업자	9,508	9,707	9,849	9,940	9,847	9,992	10,193	10,387	10,554	10,840	11,022	11,168	11,356	11,450	11,660	11,523	11,725
	일시휴직자	156	155	175	190	190	208	243	245	251	246	248	259	246	244	244	499	273
	근로시간 ³⁾	9,352	9,552	9,675	9,750	9,657	9,783	9,951	10,141	10,303	10,595	10,774	10,909	11,110	11,206	11,416	11,024	11,452
남 자 (천명)	취업자	13,323	13,481	13,712	13,835	13,840	14,041	14,333	14,568	14,745	15,057	15,156	15,241	15,368	15,372	15,463	15,381	15,548
	일시휴직자	175	165	156	161	177	167	181	168	163	167	158	154	136	159	163	338	216
	근로시간 ³⁾	13,148	13,316	13,555	13,674	13,664	13,874	14,152	14,400	14,583	14,890	14,998	15,087	15,233	15,213	15,300	15,043	15,331
계 (천명)	취업자	22,831	23,188	23,561	23,775	23,688	24,033	24,527	24,955	25,299	25,897	26,178	26,409	26,725	26,822	27,123	26,904	27,273
	일시휴직자	332	321	331	351	367	375	424	414	414	413	406	413	382	403	407	837	490
	근로시간 ³⁾	22,500	22,867	23,230	23,424	23,321	23,658	24,103	24,541	24,886	25,485	25,772	25,996	26,343	26,419	26,716	26,068	26,783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2) 한국금융연구원, 일본 정부의 부업·겸업 허용 및 가이드라인 제시, 주간금융브리프 27권 8호, pp.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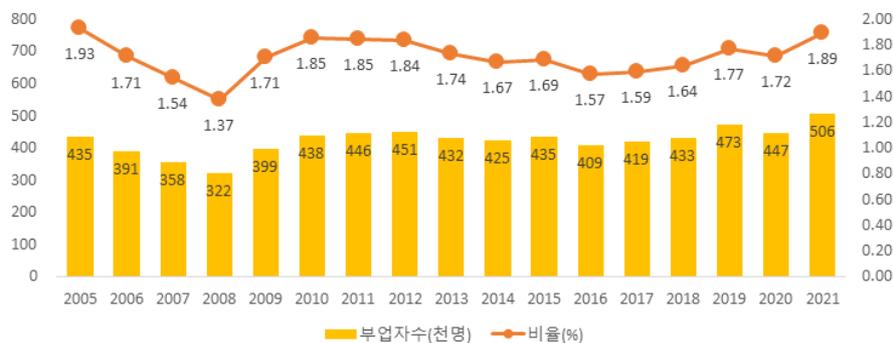
-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여성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업시장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됨
 - 특히 이번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다른 경제위기와는 다르게 대면서비스업종을 위시한 실물경제의 위기를 지녀 부업특성상 일용직 및 단순 업무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노동취약계층에게 더 악영향을 미쳤을 것임

II. 부업하는 취업자 현황

1. 부업하는 취업자의 연도별 추이

2021년 부업비율은 전년대비 상승하여 1.89%를 기록, 이는 2005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

- 2021년에는 1.89%로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이전인 2019년 1.77%보다 상승
 - 부업자수 : 부업하는 취업자의 규모
 - 부업비율 : 부업자수가 일시휴직자를 제외한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 2020년에는 부업비율이 1.72%로 2019년보다도 낮아져서 전체 일자리규모가 축소되어 부업의 규모 및 비율도 감소하였음을 가늠해볼 수 있음
 -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발 경제위기 이후로 부업의 규모가 증가했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코로나19 발 경제위기에서도 경제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2020년 이후 경제가 회복하면서 일자리의 증가 및 추가소득 확보 측면에서 공급과 수요가 모두 증가하여 부업비율 및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부업비율은 등락이 있는 반면, 부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수는 증가추세
 - 연도별 부업 비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취업자의 2% 미만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함
 - 2021년에는 1.89%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치인 2005년³⁾ 1.9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달성
 - 향후 부업비율이 예년수준으로 다시 감소할지, 코로나19발 이후 변화된 노동환경을 반영하여 더 상승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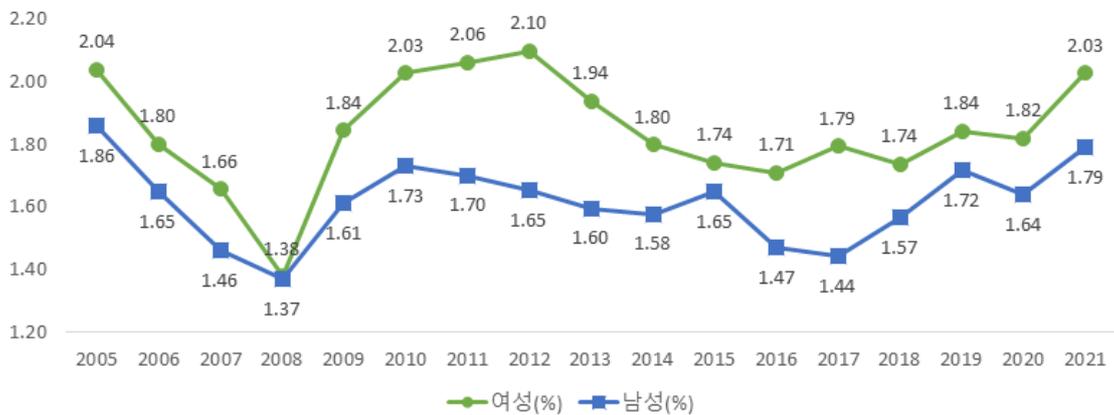
[그림 1] 부업자수 및 부업비율 추이

3) 2002년~2003년 국내 카드대란 이후 회복기에 접어들며 부업참여도 활발해진 것으로 보임.

2. 인적속성으로 살펴본 부업하는 취업자 현황

여성의 부업비율은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며, 노령층일수록 부업비율이 높아

- 2005년부터 여성의 부업비율이 남성의 부업비율에 비해 0.1%p~0.4%p 높음
 - 부업비율의 변동폭 역시 여성의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나 여성의 부업시장에서 불안정성이 더 내포됨
- 부업자수도 증가하는 가운데, 남성 대비 여성 규모(역성비)⁴⁾ 역시 증가 추세
 - 이는 전체 취업자의 역성비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여 부업이 여성과 밀접한 노동문제이며 규모측면에서 소수이지만 부업하는 여성에 대하여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 볼 수 있음을 시사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그림 2] 성별 부업비율 추이

[표 4] 성별 부업하는 취업자의 규모 및 역성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규모 (천명)	여성	190.5	171.9	160.3	134.3	178.0	198.2	205.1	212.7	199.7	190.4	187.7	186.6	199.3	194.7	210.4	200.6	232.1
	남성	244.2	219.4	198.0	187.5	220.5	240.2	240.8	238.3	232.7	234.9	247.1	222.1	219.8	238.3	262.7	246.5	274.3
	전체	434.7	391.3	358.3	321.8	398.5	438.4	445.9	451.0	432.4	425.4	434.8	408.7	419.1	433.0	473.0	447.1	506.4
남성대비 여성(%)	78.0	78.4	80.9	71.6	80.7	82.5	85.2	89.2	85.8	81.1	76.0	84.0	90.7	81.7	80.1	81.4	84.6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부터 부업비중이 증가하는 양상
 - 60대와 7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최근들어 10대의 부업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젊은층이나 고령층이 저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업을 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임
 - 혼인여부별, 교육정도별로 살펴본 결과, 기혼집단, 중졸 이하집단이 더 높은 부업비율을 보여,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인 경우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은 양상과 관련된 연령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노동인구조조 차원에서 빈곤의 노인화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가능해볼 수 있음

4) 일반적으로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로 계산되나, 성인지통계에서는 남성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여성의 수준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아 남성 100명당 여성의 수를 나타내는 역성비를 주로 사용.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고령층이 더 높은 부업비율을 보이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이 생애주기에 걸쳐 겪는 구조적인 차별요인이 고령층의 부업행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

3. 주된 일자리 속성으로 살펴본 부업하는 취업자 현황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의 경우 부업비율이 높음

-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별로 부업비율을 구한 결과,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의 경우 부업비율이 높은 편이며, 특히 시기와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여 이들 집단은 추가 소득에 대한 필요가 상존해있음을 확인
 - 상용직은 낮은 수준으로 일관적인 수준을 보이나, 여성의 경우 시기에 따라 부업비율 변동폭이 남성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주업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불만족을 가늠해 볼 수 있음
 - 산업별로는 1)농업,임업 및 어업, 5)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15)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고령층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 16)교육서비스업(학원강사, 아이돌보미 등)에서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6)농림어업속련종사자, 9)단순노무종사자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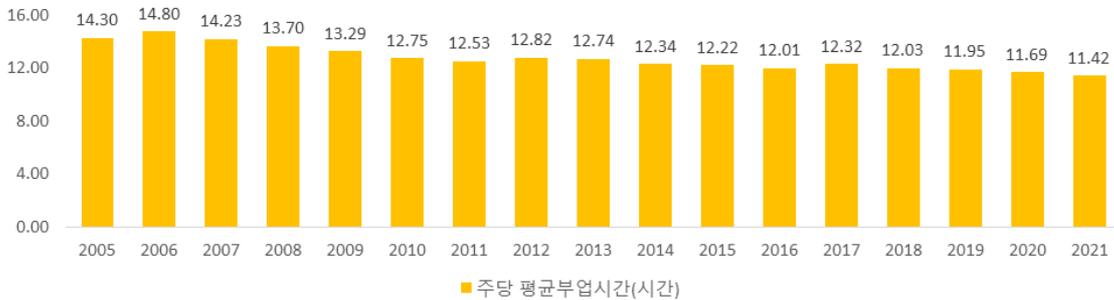
[표 5] 성별/종사상지위별 부업하는 취업자의 비율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상용직(%)	0.80	0.79	0.60	0.56	0.71	0.98	1.18	1.20	1.02	0.85	0.87	0.88	0.96	0.94	1.11	1.07	1.11
	임시직(%)	2.24	1.88	1.79	1.56	2.11	2.58	2.42	2.77	2.61	2.60	2.57	2.66	2.78	2.56	2.43	2.75	3.21
	일용직(%)	2.99	3.10	3.15	2.38	3.10	3.34	3.85	3.23	3.46	3.15	3.04	2.46	3.05	3.02	3.22	2.78	3.02
	고용주(%)	1.97	1.33	1.55	0.84	1.21	1.19	1.06	1.26	1.59	2.01	1.30	0.66	0.86	0.93	1.07	1.00	1.41
	자영업자(%)	3.64	2.79	2.49	2.20	2.96	3.00	3.05	3.18	3.04	2.64	2.60	2.70	2.84	2.90	3.12	2.92	3.47
	무급가족종사자(%)	1.33	1.60	1.55	1.28	2.00	1.85	1.92	1.77	1.57	1.66	1.56	1.62	1.44	1.86	2.30	2.28	2.36
	전체(%)	2.04	1.80	1.66	1.38	1.84	2.03	2.06	2.10	1.94	1.80	1.74	1.71	1.79	1.74	1.84	1.82	2.03
남성	상용직(%)	1.28	1.07	0.87	0.81	0.89	1.09	1.09	1.15	1.02	0.88	1.08	1.03	0.90	0.95	1.09	1.11	1.16
	임시직(%)	1.66	1.69	1.94	1.67	2.32	2.34	2.15	2.19	2.50	2.40	2.01	1.93	2.11	2.53	2.55	2.49	2.67
	일용직(%)	2.18	1.86	1.80	1.94	2.19	2.18	2.36	2.36	1.75	1.61	1.98	1.80	1.48	1.99	1.83	1.58	1.56
	고용주(%)	1.92	1.13	1.13	1.00	0.95	0.96	1.05	0.73	0.98	0.94	1.13	0.72	0.94	0.92	1.17	1.02	1.33
	자영업자(%)	2.89	2.74	2.18	2.21	2.73	2.94	2.90	2.72	2.65	3.07	3.07	2.57	2.76	2.88	3.20	2.96	3.34
	무급가족종사자(%)	2.20	3.63	2.70	1.69	2.19	2.31	2.05	1.44	2.27	2.33	2.64	2.26	1.31	1.78	2.57	1.56	2.09
	전체(%)	1.86	1.65	1.46	1.37	1.61	1.73	1.70	1.65	1.60	1.58	1.65	1.47	1.44	1.57	1.72	1.64	1.79
전체	상용직(%)	1.13	0.98	0.78	0.73	0.83	1.05	1.12	1.17	1.02	0.87	1.01	0.98	0.92	0.95	1.10	1.09	1.14
	임시직(%)	1.99	1.80	1.86	1.61	2.20	2.48	2.31	2.53	2.56	2.52	2.34	2.37	2.51	2.55	2.48	2.65	3.00
	일용직(%)	2.58	2.45	2.42	2.14	2.62	2.72	3.04	2.74	2.49	2.25	2.41	2.05	2.07	2.35	2.32	1.98	1.99
	고용주(%)	1.93	1.17	1.22	0.96	1.01	1.01	1.05	0.84	1.12	1.18	1.17	0.70	0.92	0.93	1.14	1.02	1.35
	자영업자(%)	3.13	2.75	2.28	2.21	2.80	2.96	2.95	2.86	2.76	2.94	2.92	2.61	2.78	2.89	3.18	2.95	3.38
	무급가족종사자(%)	1.44	1.84	1.69	1.33	2.02	1.92	1.94	1.73	1.66	1.75	1.70	1.70	1.42	1.85	2.33	2.17	2.32
	전체(%)	1.93	1.71	1.54	1.37	1.71	1.85	1.85	1.84	1.74	1.67	1.69	1.57	1.59	1.64	1.77	1.72	1.89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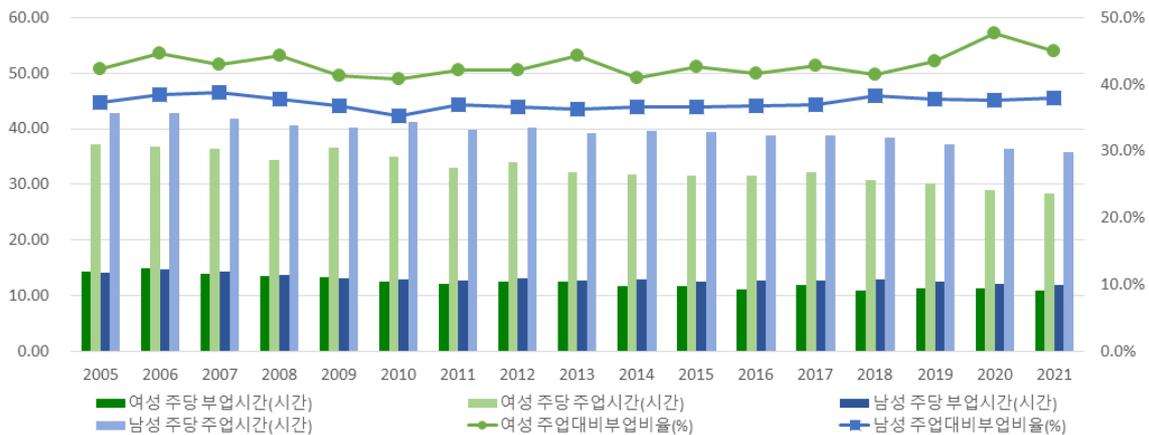
여성의 경우 부업시간과 주업시간의 차이가 적게 나타나 그 중요도는 비슷할 것으로 보임

- 최근으로 오면서 주당 평균 부업시간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전체 근로시간의 감소 추세에 따라 부업시장까지도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인지, 혹은 크라우드소싱과 같이 일거리를 나눠갖는 식으로 노동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부업에 참여하면서 일인당 수행하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이전과 다르게 부업일자리의 특성 및 참여자의 특성이 변했을 것으로 추측되나, 부업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그림 3] 부업하는 취업자의 주평균 부업시간

- 주업근로시간 대비 부업근로시간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으며, 2020년에 크게 증가
 - 여성에게 주업과 부업은 그 중요도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여성과 남성의 부업 시간의 차이는 불과 1시간인 것으로 나타나, 주업에서 여성과 남성의 부업차이가 약 5~7시간인 것과 대조됨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그림 4] 성별 주업시간 및 부업시간

[표 6] 성별 주당 부업시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주업대비 부업비율(%)	42.4	44.6	42.9	44.3	41.3	40.7	42.1	42.0	44.3	41.0	42.7	41.7	42.9	41.4	43.5	47.6	45.0
	부업시간 (시간)	14.43	14.89	13.99	13.55	13.37	12.62	12.24	12.56	12.63	11.68	11.67	11.22	11.89	10.95	11.27	11.26	10.90
	주업시간 (시간)	37.31	36.88	36.45	34.50	36.53	34.96	33.05	33.96	32.11	31.89	31.67	31.59	32.28	30.86	30.18	28.93	28.32
	근로시간 (시간)	51.74	51.77	50.44	48.05	49.90	47.58	45.29	46.51	44.74	43.58	43.34	42.80	44.17	41.81	41.45	40.19	39.22
남성	주업대비 부업비율(%)	37.3	38.4	38.7	37.8	36.8	35.3	37.0	36.7	36.3	36.5	36.5	36.7	37.0	38.2	37.8	37.5	37.9
	부업시간 (시간)	14.20	14.74	14.43	13.81	13.22	12.86	12.77	13.07	12.83	12.87	12.64	12.68	12.71	12.90	12.48	12.05	11.86
	주업시간 (시간)	42.93	42.86	41.89	40.70	40.29	41.26	39.74	40.29	39.32	39.64	39.44	38.78	38.88	38.39	37.29	36.48	35.77
	근로시간 (시간)	57.13	57.60	56.32	54.51	53.51	54.12	52.52	53.36	52.14	52.50	52.07	51.46	51.59	51.29	49.78	48.53	47.64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부업자들의 주된일자리의 임금은 낮은 수준으로 부업은 추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됨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자료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
- 주된일자리의 3개월 간 평균임금을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부업을 하는 집단의 주업 임금수준이 더 낮으며, 부업하는 여성이 임금수준이 가장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업하는 여성의 주업임금은 부업을 안하는 여성이 받는 임금의 60~70% 수준
 - 부업하는 남성의 주업임금은 부업을 안하는 남성이 받는 임금의 70~80% 수준
- 부업을 통해서 추가소득을 얻는 것은 주업의 임금수준이 낮은 여성들에게 더 중요한 일임

[표 7] 성별/부업여부별 3개월 간 주된일자리의 월평균임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부업함(만원)	78.8	91.8	89.2	88.7	81.4	96.0	94.1	99.2	102.3	111.7	121.0	120.3	127.6	142.9	146.9	150.9	137.7
	부업안함(만원)	110.1	116.5	120.8	129.0	128.6	135.9	142.0	148.9	155.2	159.4	166.7	173.9	181.8	193.3	201.2	206.1	211.5
	전체(만원)	109.5	116.1	120.4	128.5	127.7	135.1	141.0	147.9	154.2	158.6	165.9	173.0	180.9	192.5	200.3	205.1	210.1
	임금비율(%)	71.6	78.8	73.8	68.8	63.3	70.6	66.3	66.6	65.9	70.1	72.6	69.2	70.2	73.9	73.0	73.2	65.1
남성	부업함(만원)	157.8	154.4	165.4	175.5	177.4	181.5	197.1	206.5	189.1	209.9	235.8	242.5	237.8	254.1	252.7	259.9	248.6
	부업안함(만원)	191.7	198.4	210.5	221.9	224.8	238.0	248.2	256.8	266.2	270.3	277.2	285.6	291.1	305.8	315.5	318.9	328.2
	전체(만원)	191.2	197.8	209.9	221.4	224.0	237.2	247.4	256.0	265.0	269.5	276.6	285.1	290.4	305.1	314.4	318.0	327.0
	임금비율(%)	82.3	77.8	78.6	79.1	78.9	76.2	79.4	80.4	71.0	77.7	85.1	84.9	81.7	83.1	80.1	81.5	75.7

*임금비율 : (부업하는 근로자의 주된일자리 평균임금)/(부업안하는근로자의 주된일자리 평균임금) × 100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 시간당 평균임금으로 구한 결과 역시 부업을 하는 경우의 주업 시간당 평균 임금수준이 더 낮음

- 부업하는 집단의 주된일자리 임금은 시간당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면 남녀 모두 부업을 안하는 집단의 임금의 70~80%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남
- 여성의 경우 남성 대비 주업근로시간이 짧아 시간당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부업을 안하는 경우의 주된일자리 임금과의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됨
- 부업을 안하는 경우의 성별임금격차와 부업을 하는 경우의 성별임금격차 모두 60~70%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주업만 하는 여성의 일자리 상황도 그리 좋지 않겠으나, 부업까지 하는 여성은 저임금 및 장시간 근로라는 이중고에 처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8] 성별/부업여부별 3개월 간 주된일자리의 시간당 평균임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부업함(만원)	0.472	0.553	0.580	0.628	0.527	0.626	0.682	0.690	0.720	0.839	0.846	0.859	0.877	1.016	1.201	1.108	1.121
	부업안함(만원)	0.593	0.633	0.658	0.715	0.731	0.774	0.823	0.867	0.909	0.933	0.979	1.039	1.087	1.174	1.248	1.289	1.324
	전체(만원)	0.591	0.632	0.657	0.714	0.727	0.771	0.820	0.863	0.906	0.932	0.977	1.036	1.083	1.172	1.248	1.285	1.320
	임금비율(%)	79.6	87.3	88.1	87.8	72.0	80.8	82.9	79.6	79.2	89.9	86.4	82.7	80.7	86.5	96.2	86.0	84.6
남성	부업함(만원)	0.817	0.846	0.905	0.933	0.961	0.980	1.121	1.146	1.094	1.184	1.341	1.379	1.334	1.486	1.452	1.524	1.480
	부업안함(만원)	0.955	1.000	1.078	1.153	1.190	1.270	1.338	1.400	1.457	1.477	1.513	1.572	1.592	1.679	1.741	1.781	1.841
	전체(만원)	0.953	0.998	1.076	1.150	1.187	1.266	1.335	1.396	1.451	1.473	1.510	1.569	1.589	1.677	1.736	1.777	1.835
	임금비율(%)	85.5	84.5	84.0	80.9	80.8	77.2	83.8	81.8	75.1	80.1	88.7	87.7	83.8	88.5	83.4	85.6	80.4
임금역성비	부업함(%)	57.8	65.4	64.0	67.3	54.8	63.8	60.8	60.3	65.8	70.9	63.1	62.3	65.7	68.3	82.7	72.7	75.7
	부업안함(%)	62.1	63.3	61.0	62.1	61.4	60.9	61.5	61.9	62.4	63.2	64.7	66.1	68.3	69.9	71.7	72.4	71.9
	전체(%)	62.0	63.3	61.1	62.1	61.3	60.9	61.4	61.8	62.4	63.3	64.7	66.0	68.2	69.9	71.9	72.3	71.9

1) 임금비율 : (부업하는 근로자의 주된일자리 평균임금)/(부업안하는근로자의 주된일자리 평균임금) × 100

2) 임금역성비 : (여성의 주된일자리 평균임금)/(남성의 주된일자리 평균임금) × 100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 부업하는 여성 중 저임금근로자⁵⁾비율이 감소추세였으나 2021년에 반등하여 증가함

- 2018년부터 30%대가 되었으나, 2021년 43.1%로 증가하여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인한 주된일자리의 수익악화가 부업의 참여를 촉진시킨 것은 아닌지 추가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
- 남성의 경우에도 부업을 하는 임금근로자의 30%가량이 저임금근로자였으나, 2018년부터 20% 수준이며, 여성과 대조적으로 2021년까지 유지

○ 전체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부업을 하는 여성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아져 코로나 19발 경제위기로 취약계층의 상황이 악화된 것을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부업을 하는 경우, 주된일자리의 평균임금이 2021년에 전년대비 감소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남성은 2021년 전년대비 -4.3%의 변화율을 보인데 비해, 여성은 두 배정도인 -8.7%의 임금변화율을 겪음
- 이들에게 부업은 추가소득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인데 부업시장도 불경기의 영향으로 근로조건이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5) 전체 임금근로자 중 중위임금의 2/3을 받고 있는 임금근로자로 주된일자리의 임금을 통해 성별/부업여부별 집단의 저임금근로자비율을 산정함.

- 2021년 저임금근로자의 부업비율은 3.4%였으며, 이는 비저임금근로자의 부업비율인 1.4%의 2배를 넘는 수치임

[표 9] 성별/부업여부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부업함(%)	54.3	57.1	51.2	54.4	55.6	47.7	46.7	54.2	38.6	35.1	36.3	43.1
	부업안함(%)	40.5	40.7	38.6	37.7	37.1	37.1	33.9	34.2	25.3	22.5	23.8	21.4
	전체(%)	40.8	41.0	38.9	38.0	37.4	37.3	34.1	34.5	25.5	22.8	24.0	21.8
남성	부업함(%)	27.4	28.9	27.7	27.3	29.1	23.5	23.5	27.9	19.0	20.4	21.6	20.8
	부업안함(%)	16.2	16.2	15.6	15.1	14.4	15.0	15.1	15.5	12.0	11.0	11.7	10.7
	전체(%)	16.4	16.4	15.8	15.3	14.6	15.2	15.2	15.6	12.1	11.1	11.9	10.9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Ⅲ.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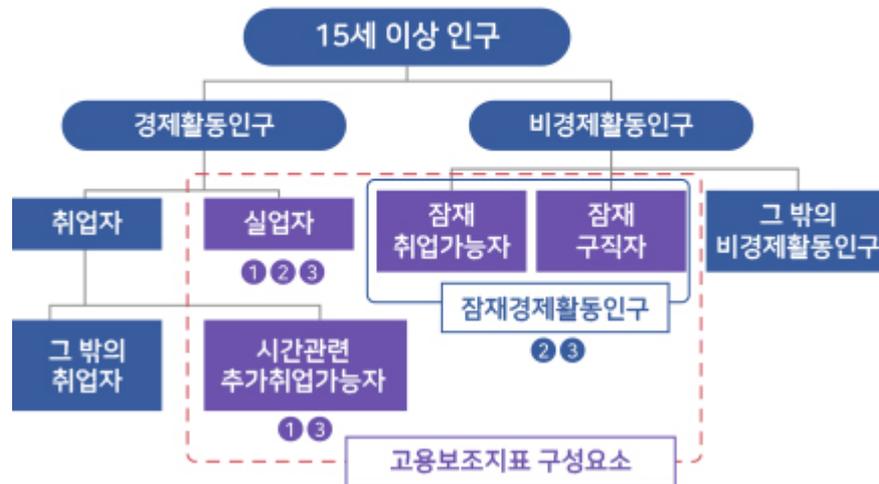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근로시간을 실제로 더 늘릴 수 있었던 집단을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로 분류하여 고용보조지표 구성요소로 활용

- 고용보조지표의 개발을 통하여 체감되는 노동시장을 지표로 포착하고자 함
 - 전일제 위주의 노동시장의 구조가 깨지면서 여성, 청년층 및 고령층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
 - 기존의 노동시장 지표인 고용률, 실업률은 이러한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대두되었고,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도 저활용되는 노동력에 대한 통계가 필요해짐
 - 기존 분류법은 취업자를 먼저 파악한 후에 구직상황에 따라 실업자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조사된 실업자 규모가 체감되는 실업자보다 적게 느껴지는 한계가 있었음, 임시일자리이거나 근로시간이 짧은 일자리에 취업이 되면 통계상으로는 실업자가 아니게 되어 이직을 원하거나 추가로 더 일하고 싶은 노동자의 규모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
 - 이에 통계청에서는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하여, 더 확장된 범위의 경제활동인구, 실업자를 파악하고자 함

[표 10] 경제활동인구조사상 고용보조지표 정의

<p> 고용보조지표(Labour underutilization indicators)</p> <p>국제노동기구(ILO)가 새롭게 확정('13.10월)한 고용보조지표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의미하며, 실업자 이외에도, 취업자 중에서 ①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잠재경제활동인구인 ②잠재취업가능자 및 ③잠재구직자로 구성됨</p> <p style="text-align: center;">< 고용보조지표 유형 ></p>	
지표 유형	계산식
고용보조지표1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보조지표2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보조지표3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 경제활동인구 × 100
* 확장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출처 : 통계청,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p6.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신설된 고용보조지표



①②③은 고용지표 1,2,3이 포함하는 항목에 대한 표시이다.
 예를 들어 고용보조지표2는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된다.
 출처 : 통계교육원 홈페이지(http://sti.kostat.go.kr/window/2018a/main/2018_sum_8.html, 2022.5. 31 인출)

[그림 5] 고용보조지표

- 취업자 중에서 추가취업이 가능한 여력이 있는 집단을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로 구분하여 실업자와 함께 구직을 희망하는 집단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고용보조지표의 요소로 활용하고 있음

1.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연도별 추이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의 규모와 비율은 증가추세, 특히 2020년에 큰 폭으로 상승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는 근로시간을 첫째 기준으로 삼아서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 중에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며, 추가 취업이 가능한 사람들로 정의
 - 2015년부터 공식적으로 발표,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증가와 함께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역시 증가

[표 11]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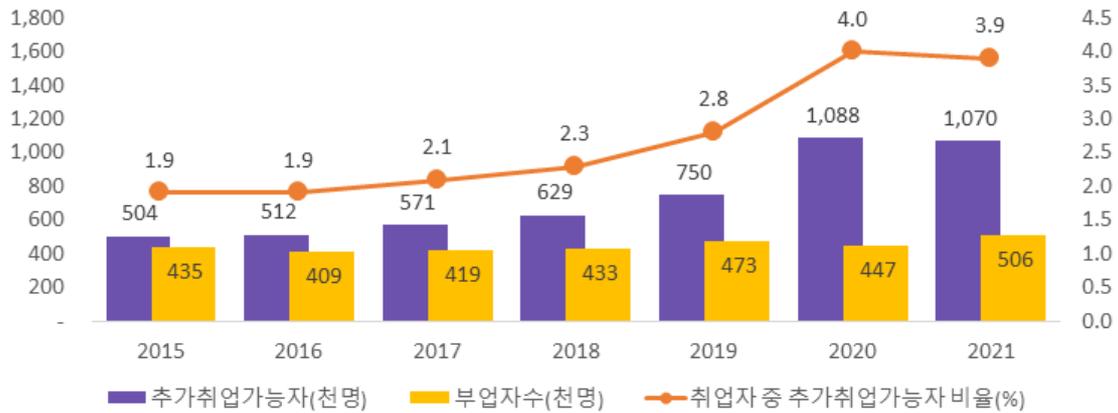
<p>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Time-related underemployment)</p> <p>조사대상기간에 실제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인 사람 중에서 추가취업을 원하고, 추가취업가능성이 있는 사람</p> <p>출처 : 통계청,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p7.</p>
--

- 2019년에서 2020년에 추가취업희망자 및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각각 48.7%, 45.1%로 1.5배 가까이 증가
 - 해당 규모는 부업을 하는 취업자의 2배를 넘는 수치⁶⁾
 - 2019년에서 2020년에 취업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규모는 16.9%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이 축소되었음.
 -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추가취업을 희망했던 취업자들이 많았음을 방증함
- 2021년에도 2020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여 향후 노동시장에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실제로 취업이 가능했던 사람들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함
 - 이들을 소득보전 정책대상자로 볼지, 추가취업 혹은 안정된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노동 정책대상자로 보는 것은 추가 연구를 통하여 유형화할 수 있을 것임

[표 12]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규모 추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취업자 규모	규모(천명)	26,178	26,409	26,725	26,822	27,123	26,904	27,273
	36시간 미만 취업자 규모	4,412	4,900	4,795	5,613	5,808	6,793	7,195
추가취업 희망자	취업자대비(%)	16.9	18.6	17.9	20.9	21.4	25.2	26.4
	규모(천명)	568	559	626	686	837	1,244	1,245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취업자대비(%)	2.2	2.1	2.3	2.6	3.1	4.6	4.6
	규모(천명)	504	512	571	629	750	1,088	1,070
	취업자대비(%)	1.9	1.9	2.1	2.3	2.8	4.0	3.9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그림 6] 시간관련추가취업자 추이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중 부업을 하고 있는 비율은 2%남짓이나 2019년부터 오름세
 - 일시휴직자의 경우, 2020년에 전년대비 규모는 약 6배, 비율은 약 4배 급증
 - 일시휴직자처럼 경제위기의 여파로 주된일자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게 되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면서 실제로도 즉시 취업할 수 있었던 인력이 존재, 경제회복기에 접어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함
- 6)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중 이미 부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표 13]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구분별 추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일시휴직자	규모(천명)	27	24	21	23	22	123	61
	비율(%)	5.4	4.7	3.6	3.6	2.9	11.3	5.7
부업함	규모(천명)	12	10	11	13	14	23	26
	비율(%)	2.5	2.0	1.9	2.0	1.8	2.1	2.4
부업안함	규모(천명)	465	477	539	594	715	943	984
	비율(%)	92.2	93.3	94.4	94.3	95.3	86.6	91.9
전체	규모(천명)	504	512	571	629	750	1,088	1,070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의 약 3/4에 해당되는 대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하며 2020년에 다소 큰폭으로 증가함.

-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음은 두 번째로 응답 비중 높으나 감소 추세
- 현재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은 부업을 희망하는 취업자들로 임하며, 2020년에는 주된일 자리의 축소에 영향을 받아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반등하여 추후 추이 지켜봐야 함

[표 14]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구분별 추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규모(천명)	358	370	410	467	559	843	820
	비율(%)	71.0	72.3	71.9	74.1	74.6	77.5	76.6
현재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규모(천명)	65	59	64	67	75	106	117
	비율(%)	12.9	11.5	11.3	10.7	10.0	9.8	10.9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싶음	규모(천명)	81	83	96	95	116	139	133
	비율(%)	16.1	16.2	16.8	15.2	15.4	12.8	12.4
전체	규모(천명)	504	512	571	629	750	1,088	1,070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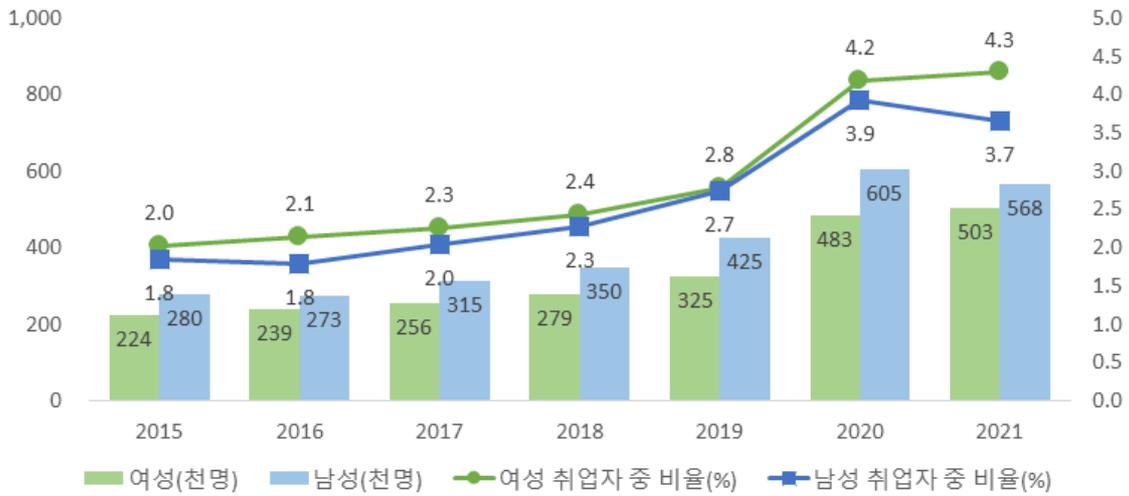
2. 인적속성으로 살펴본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현황

2021년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비율이 전년대비 여성은 증가, 남성은 감소

○ 부업을 희망하는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의 규모는 2015년 대비 2019년에는 1.5배, 2020년에는 2.2배 증가함.

- 취업자 중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음
- 2020년에 여성 4.2%, 남성 3.9%로 전년 2019년 대비 약 1.5배 가량 증가함
- 2021년에 여성은 비율이 0.1%p 높아진 반면, 남성은 0.2%p가 낮아짐, 규모측면에서도 남성규모는 감소한 반면 여성규모는 증가하여 경제회복기에서도 성별차이가 존재함

○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21년에 규모 및 비율 면에서 남성은 감소한 반면, 여성은 증가하여 경제위기 이후로 여성에게 부업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을 확인함



[그림 7] 성별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추이

[표 15] 성별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규모 및 역성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규모 (천명)	여성	224	239	256	279	325	483	503
	남성	280	273	315	350	425	605	568
	전체	504	512	571	629	750	1,088	1,070
남성대비 여성(%)		80.0	87.5	81.3	79.7	76.5	79.8	88.6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이직이나 추가일자리를 통한 근로시간 증가를 더 희망

- 유형별 순위는 성별과 무관하게 현재 일자리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더 긴 근로시간의 일자리로 이직하고 싶음, 현재일자리 이외 다른 일을 하고 싶음 순으로 나타남

[표 16] 성별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구분별 추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규모(천명)	71	145	160	171	195	223	356
		비율(%)	60.1	64.7	66.9	67.0	69.8	68.5	73.6
	현재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규모(천명)	17	36	34	30	37	43	56
		비율(%)	14.8	16.1	14.1	11.9	13.4	13.4	11.5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싶음	규모(천명)	29	43	45	54	47	59	72
		비율(%)	25.1	19.2	19.0	21.1	16.8	18.1	14.9
전체		규모(천명)	117	224	239	256	279	325	483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성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규모(천명)	107	213	210	239	272	337	487
		비율(%)	70.3	76.0	77.0	75.9	77.6	79.2	80.6
	현재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규모(천명)	22	29	25	34	30	32	51
		비율(%)	14.7	10.4	9.2	10.8	8.6	7.5	8.4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싶음	규모(천명)	23	38	38	42	48	57	67
		비율(%)	15.0	13.6	13.8	13.3	13.8	13.3	11.1
전체		규모(천명)	153	280	273	315	350	425	605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시간관련추가취업자의 비율⁷⁾은 10대 및 60대에서 높게 나타남
 - 2020년에 전체 10대 집단에서의 비율은 7.1%로 대비 1.7배 증가,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19년에 배달서비스의 등장으로 이미 증가한 반면, 여성의 경우 2020년의 상승추이가 전체집단의 상승추이와 비슷하게 나타나 여성의 변화가 견인한 것으로 보임
 - 노동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집단으로 간주되는 60대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추이를 보이다 2019년부터 남성과 여성 모두 4%대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며, 노령층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를 확인해 볼 수 있음
- 다만 다른 연령층에서는 2020년을 기점으로 추가취업에 대한 의향이 증가했음을 통해 경제 위기로 촉발된 추가근로소득에 대한 욕구를 확인해 볼 수 있음

[표 17] 성별/연령별 취업자 중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비율 및 규모

구분	비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15세~19세	3.6	3.6	2.5	3.3	2.6	7.3	5.9
	20대	2.0	2.1	2.5	2.5	2.3	4.3	4.2
	30대	1.7	1.5	1.8	1.9	2.1	3.2	3.5
	40대	2.1	2.4	2.3	2.9	3.2	4.4	4.8
	50대	2.0	2.4	2.3	2.1	2.5	4.3	4.6
	60대	2.3	2.1	2.4	2.9	4.3	4.8	4.4
	70대	2.4	2.2	2.8	2.9	3.2	4.1	3.8
	80대 이상	1.9	0.6	0.4	0.6	1.5	2.2	2.5
	전체	2.0	2.1	2.3	2.4	2.8	4.2	4.3
남성	15세~19세	3.8	3.6	3.6	3.8	6.2	6.9	6.6
	20대	1.2	1.5	1.4	1.7	2.7	3.3	3.0
	30대	0.7	0.9	1.0	1.0	1.3	2.3	2.5
	40대	1.6	1.4	1.7	2.0	2.3	3.0	2.6
	50대	2.7	2.5	2.6	3.1	3.5	5.1	4.6
	60대	3.5	3.1	4.0	3.6	4.6	6.5	6.0
	70대	2.8	2.8	3.5	3.8	3.3	4.3	3.9
	80대 이상	0.8	0.4	1.8	4.7	1.7	2.6	2.0
	전체	1.8	1.8	2.1	2.3	2.7	3.9	3.7
전체	15세~19세	3.7	3.6	3.0	3.5	4.2	7.1	6.2
	20대	1.6	1.8	2.0	2.1	2.5	3.8	3.6
	30대	1.1	1.1	1.3	1.3	1.6	2.7	2.9
	40대	1.8	1.8	2.0	2.3	2.7	3.6	3.5
	50대	2.4	2.4	2.5	2.7	3.1	4.8	4.6
	60대	3.0	2.7	3.3	3.4	4.5	5.8	5.3
	70대	2.6	2.5	3.2	3.4	3.3	4.2	3.9
	80대 이상	1.3	0.5	1.1	2.6	1.6	2.3	2.2
	전체	1.9	1.9	2.1	2.3	2.8	4.0	3.9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7) 해당비율에서 분모에 해당되는 취업자는 일시휴직자를 포함하여, 부업비율 산출시 활용되었던 취업자의 규모보다 소폭 큼.

혼자 생계를 영위해나가는 미혼집단의 추가취업가능자 비율이 높은 편

- 미혼의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의 비율이 기혼보다 더 높았으며, 특히 여성미혼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음
 - 맞벌이부부가 될 수 있는 기혼과 다르게 미혼은 혼자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소득 부담이 더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기혼집단의 부업비율이 더 높았던 양상과 대조됨⁸⁾
 - 부업을 하는 이유가 추가수입을 통한 가구소득의 보전이라는 차원이라면, 기혼집단은 맞벌이를 통하여 가구소득을 늘릴 수 있으나, 미혼의 경우는 본인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
 - 본 조사에서는 가구의 가계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지만, 추후 다른 조사자료를 통하여 가구소득과 부업의향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한가지 과제가 될 수 있음,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가를 수요하게 되어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가 작동한다면 가구소득과 부업의향은 음의 관계를 지닐 것이며, 부업하는 집단의 주된일자리 임금이 낮았음을 감안한다면, 부업을 희망하는 집단은 소득효과가 주로 작동할 것임

[표 18] 성별/혼인여부별 취업자 중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비율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기혼	1.9	2.1	2.1	2.3	2.7	4.0	4.2
	미혼	2.3	2.3	2.6	2.8	2.9	4.8	4.7
	전체	2.0	2.1	2.3	2.4	2.8	4.2	4.3
남성	기혼	1.9	1.7	2.0	2.3	2.6	3.8	3.5
	미혼	1.8	1.9	2.1	2.3	3.1	4.3	4.1
	전체	1.8	1.8	2.1	2.3	2.7	3.9	3.7
전체	기혼	1.9	1.9	2.1	2.3	2.7	3.9	3.8
	미혼	2.0	2.1	2.3	2.5	3.0	4.5	4.3
	전체	1.9	1.9	2.1	2.3	2.8	4.0	3.9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은 다른 모습을 보임, 여성의 경우 학력별로 비율의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
 - 교육수준별 모든 집단에서 증가추이를 보이다 2020년을 계기로 증가세가 크게 오르는 모습
 - 부업비율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연령효과로 인하여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업비율이 높아지는 양상이 남성집단에게서만 나타나고, 여성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음, 즉, 여성집단의 경우,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비슷한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비율이 나타남
 - 특히 인적자본이 많이 축적된 초대졸이상의 여성이 다른 집단과 동일하게 부업을 원한다는 것은 그들이 처한 노동환경이 초대졸이상의 남성의 노동환경과 상이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8) 일시휴직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에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구하여도 기혼인 경우 부업비율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음. 2021년 기준 여성기혼 2.2%, 남성기혼 2.0%임에 비해, 여성미혼 1.2%, 남성미혼 1.2%였음. 일시휴직자의 규모가 전체 취업자 대비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추세에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임.

[표 19] 성별/교육정도별 취업자 중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비율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중졸이하	2.1	2.1	2.3	2.6	3.5	4.5	4.2
	고졸	2.0	2.2	2.0	2.1	2.8	4.3	4.5
	초대졸이상	2.0	2.1	2.4	2.6	2.5	4.0	4.2
	전체	2.0	2.1	2.3	2.4	2.8	4.2	4.3
남성	중졸이하	4.4	3.8	4.4	5.3	6.5	8.2	7.6
	고졸	2.1	2.2	2.6	2.7	3.2	4.8	4.4
	초대졸이상	0.9	0.9	1.0	1.2	1.5	2.3	2.2
	전체	1.8	1.8	2.1	2.3	2.7	3.9	3.7
전체	중졸이하	3.1	2.9	3.3	3.9	4.9	6.2	5.8
	고졸	2.1	2.2	2.4	2.5	3.0	4.6	4.4
	초대졸이상	1.3	1.4	1.5	1.8	1.9	3.0	3.0
	전체	1.9	1.9	2.1	2.3	2.8	4.0	3.9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3. 주된 일자리 속성으로 살펴본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현황

근로시간의 증가를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가능성

○ 주된일자리 속성의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일용직에서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음

- 특히 남성 일용직집단은 그 비율이 가장 높아, 2021년 기준 남성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임시직 집단의 비율인 6.9%보다도 3.4배 높은 23.5%를 차지
- 여성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2021년 기준 여성 일용직에서의 비율은 18.6%로 임시직 8.4%에 비해 2.2배 높음
- 여성의 경우, 자영업자에서의 비율이 높은 것도 특기할만함, 특히 2020년 이후 비율이 전년대비 1.9배를 기록하면서, 여성이 주로 분포한 음식 및 숙박업에서 코로나19발 경제위기의 타격이 심각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음
- 전반적인 경향으로, 일용직, 임시직, 자영업자에서 높은 비율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부업비율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나, 일용직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차지한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이는 단순히 추가적인 근무 및 근로소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안정적이고 근로환경이 개선된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음⁹⁾

9) 2021년 기준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응답은 종사상지위별로 다음과 같았음. 일용직의 경우, 현재 일자리의 근로시간 증가를 높게 응답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임시직은 이직을 통한 근로시간 증가를 선호하였음.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현재일자리 근로시간 증가	72.0	64.9	82.4	90.7	87.2	73.6	76.6
추가일자리 통한 근로시간 증가	16.7	14.5	6.9	8.2	8.2	9.6	10.9
이직을 통한 근로시간 증가	11.2	20.6	10.6	1.1	4.7	16.8	12.4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표 20] 성별/종사상지위별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의 비율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상용직	0.3	0.3	0.4	0.4	0.6	1.4	1.2
	임시직	3.2	3.4	3.9	4.2	5.5	7.5	8.4
	일용직	9.2	10.6	10.3	11.5	14.2	18.7	18.6
	고용주	0.3	0.3	0.8	0.7	0.7	2.2	2.4
	자영업자	4.0	4.4	4.2	5.6	4.2	7.9	8.5
	무급가족종사자	0.4	0.6	0.6	0.6	0.7	1.1	1.6
	전체	2.0	2.1	2.3	2.4	2.8	4.2	4.3
남성	상용직	0.1	0.1	0.1	0.1	0.2	0.7	0.5
	임시직	2.5	2.4	2.8	3.4	4.5	6.3	6.9
	일용직	12.7	12.6	15.5	17.7	21.2	24.7	23.5
	고용주	1.0	1.1	1.1	1.2	1.5	2.6	1.4
	자영업자	3.1	2.8	3.0	3.1	3.9	6.4	5.9
	무급가족종사자	2.9	3.0	2.2	1.9	1.7	4.2	4.0
	전체	1.8	1.8	2.1	2.3	2.7	3.9	3.7
전체	상용직	0.2	0.2	0.2	0.2	0.3	0.9	0.8
	임시직	2.9	3.0	3.5	3.9	5.1	7.0	7.8
	일용직	11.3	11.8	13.5	15.5	18.7	22.7	22.1
	고용주	0.8	0.9	1.0	1.1	1.3	2.5	1.7
	자영업자	3.4	3.3	3.3	3.9	4.0	6.8	6.7
	무급가족종사자	0.7	0.9	0.8	0.8	0.8	1.6	2.0
	전체	1.9	1.9	2.1	2.3	2.8	4.0	3.9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의 총근로시간은 약 20시간으로 주당 정규근로시간의 절반 수준

- 일시휴직자를 제외한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의 총근로시간(부업시간 포함)을 살펴보면 현재 주당 정규근로시간인 40시간의 절반 정도의 수준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2시간 가량 근로시간이 짧음
 - 2021년 시급 최저임금인 9,160원으로 일괄 적용하여 계산한다면, 4주 간 여성은 685,991원, 남성은 767,903원의 소득을 벌

[표 21] 성별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의 총근로시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주평균 근로시간 (시간)	여성	19.00	18.28	18.30	18.51	18.68	18.93	18.72
	남성	21.72	22.18	21.72	21.35	20.89	21.14	20.96
	전체	20.49	20.32	20.18	20.08	19.92	20.17	19.91

* 총근로시간=주업근로시간+부업근로시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IV. 요약 및 시사점

부업을 하는 경우는 여성, 고령층,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이 많음, 이들은 주업에서 버는 임금이 낮으며, 추가소득을 위하여 부업을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업은 본업 이외에 추가로 하는 일로 인지되고 있으나, 통계상에서의 부업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된 대로 파악할 수 있음
 - 여기서의 부업은 가장 많이 근로한 시간의 일자리인 주업 외에 그 다음으로 많이 근로한 시간의 일자리로 파악되어 주업을 잠시 쉬는 상태인 임시휴직자를 제외한 취업자의 부업에 한하여 알아볼 수 있음
 - 또한 임금직이 주업이거나 부업일때만 파악이 가능
-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속성 및 이들의 주된일자리 속성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 고령층,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임을 확인
- 시기별로는 살펴보면, 경제위기 후 회복하는 국면에서 부업이 증가하는 양상
 - 이를 노동시장에서의 일시적인 불일치로 봐야할지, 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으로 재편으로 봐야할지는 경우에 따라 다를 것임, 이전의 금융위기발 경제위기는 경기적 실업의 성격인 반면,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실물경제를 바꿈으로써 구조적실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임.
 - 따라서 이후 산업 및 노동시장의 추이를 파악하여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노동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준 것인지, 영구적인 개편을 가져올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필요, 만약 산업의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했다면 노동시장 역시 산업구조에 맞게 재편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산업별로 일자리수급과 부업가능성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임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는 일용직의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 10대 및 60대, 미혼 집단에서의 비율이 높았음, 이들은 주당 정규 근무시간인 40시간의 절반 수준인 20시간 정도를 근무함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를 통하여 근로시간을 더 늘리고 싶고, 실제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집단을 분석한 결과, 일용직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이들은 부업보다는 기존일자리의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됨
 - 시간관련추가취업자를 가르는 선문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증가하는지 유형을 물어봤을 때, 현재의 일자리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2021년 76.6%로 상당부분을 차지하였고 특히 일용직은 82.4%로 높은 수치를 보임
 - 성별로 취업자 대비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폭 더 높게 나타났다, 2021년에는 여성은 4.3%로 전년대비 0.1%p 상승한 반면, 남성은 전년대비 0.2%p감소한 3.7%가 나타남
 - 이들의 총근로시간은 주당 약 20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의 반절정도의 수준임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부업개념에 대한 재고가 필요

○ 부수입 조사의 필요성

- 임금의 출처가 다른 부수입의 경우는 주업의 확장개념으로 간주하므로 조사에서는 파악되지 않음
- 부수입이 증가하는 분야는 호황산업일 것이므로, 추후 노동시장 역시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선제적으로 이에 대한 분석 및 노동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이 필요
- 현행 조사를 유지하면서 국세청자료를 통하여 고정수입 이외의 수입을 파악하는 방법이나 점차 다양해지는 경제활동 양상을 고려하여 고용위주의 조사가 아닌 소득출처위주의 조사로의 개편을 고안해볼 수 있음

○ 부업의 다양한 유형 파악의 필요성

- 조사절차상 비임금근로자가 또 다른 비임금근로를 하는 경우의 부업은 잡하지 않는 것 또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
- 한 명의 취업자가 성격이 상이한 비임금근로를 하는 경우, 이는 산업구조전환기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조사에서는 파악되지 않아 정책대상에서 간과되거나 누락될 수 있음, 특히 자영업자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상 고민해봐야할 지점임
- 비임금근로자대상 부가조사시 부업과 관련된 조사설계를 고려해보는 것을 제안함.
- 추후 종사상지위 개편과 더불어 부업의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함

○ 경제위기시 주업과 부업의 기준이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과의 차이가 있음을 유의

- 예를 들어, 산업적으로 구조조정이 오는 경우 조사시 부업과 주업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주업이 임시휴직상태일 때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갖는 경우, 조사상 주업의 정의대로 추가된 일자리의 근로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주업으로 조사하게 됨.
- 횡단면자료의 성격상 주업과 부업의 기준을 근로시간으로 두는 것은 편리하고 직관적인 방법이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반영을 잘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녀 분석시 유의가 필요함.

노동취약계층을 알려주는 지표로서의 부업자수와 부업비율

○ 현재의 조사방식에서 부업과 관련된 지표를 인구속성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경우, 취약층이 부업을 많이하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여성, 고령층, 임시일용직, 자영업자에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는 노동시장에서 표준으로 간주되는 '정규적인 일자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시간이 남아서 혹은 소득을 더 벌기 위해서 2가지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하게 됨을 시사함
- 따라서 부업비율은 현재 표준방식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의 노동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므로 정책적으로 주목해야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부업의 의미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실태조사의 필요성

- 경제 위기 이후, 근로소득이 저평가된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제2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재테크로서 부업의 의미가 대두되는 추세
 - 이는 취약계층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여러 가지 근로형태를 통하여 부수적인 소득을 얻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변화하는 부업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
 - 노동시장에서의 부업의 양상은 변화하고 있는 반면, 노동정책 및 그 근거가 되는 노동통계는 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노동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부업을 둘러싼 맥락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펼 필요가 있음
 - 조사를 통해 부업을 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그 원인이 1) 노동취약계층의 추가소득을 위한 부업인지, 2) 특정 산업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부족으로 해당산업에서 일하는 기존 근로자들이 다수의 일자리에 종사하게되는 것인지, 3) 개인이 일자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일자리를 갖게된 것인지 등 노동시장 및 산업시장 전반의 맥락을 파악해야 부업을 유형화하고 그에 맞추어 소득보장이나 직업훈련과 관련된 복지 및 노동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노동시장을 둘러싼 전반적인 변화는 일자리기반의 복지정책의 변화를 요함
 - 비임금근로자에게도 보편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듯이 고용상태보다는 근로소득을 근거로 하는 복지정책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
 - 최근 등장하는 부업의 유형은 임금일자리에서 벗어나서 비임금근로성격을 띄고 있음,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개인의 재능을 활용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추가수입 등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방식의 부업이나, 클라우드 소싱 등을 통하여 프리랜서로 여러 업체와 동시다발적으로 일하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음
 - 노동시장의 근로형태 다양성 증가 대응과 근로취약계층 소득보전을 위해 부업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보호받는 노동이 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
 - 정책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며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또한 요구됨

참고문헌

- 임용빈·최형재. (2017). 부업 참여 및 부업 근로시간의 결정요인: 기혼자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40(2), 31-68.
- 정성미. (2017).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과 특징. 월간 노동리뷰, 2017년 2월호, 51-67.
- 통계청.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01004>(2022.6.23. 인출)
- 한국금융연구원. (2018). 일본 정부의 부업·겸업 허용 및 가이드라인 제시. 주간금융브리프, 27(8), 26-27.
- 통계교육원, http://sti.kostat.go.kr/window/2018a/main/2018_sum_8.html (2022.5.31 인출)
- Economic Research Division, <https://fred.stlouisfed.org/series/LNU02026620>
<https://fred.stlouisfed.org/series/LNU02026624>
<https://fred.stlouisfed.org/series/LNU02026622> (2022.5.30. 인출)

부표

[부표 1] 성별/연령별 부업하는 취업자의 비율

성별	연령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15세~19세	0.7	0.9	0.6	0.6	1.4	1.0	0.9	0.7	0.6	0.8	0.9	2.1	1.1	0.7	0.8	1.9	2.4
	20대	0.8	0.8	0.7	0.6	0.8	1.0	1.1	1.2	1.1	0.9	0.9	0.9	0.8	1.1	1.2	0.9	1.1
	30대	1.6	1.4	1.2	0.8	1.2	1.5	1.3	1.3	1.1	1.0	1.0	0.9	1.0	1.0	1.3	1.3	1.3
	40대	2.3	2.0	2.0	1.5	1.8	2.4	2.0	2.2	1.9	1.7	1.9	1.7	1.7	1.5	1.4	1.3	1.7
	50대	2.6	2.4	1.9	1.9	2.2	2.1	2.6	2.7	2.2	2.3	2.1	2.3	2.3	2.0	2.1	2.2	2.0
	60대	4.7	3.9	3.4	2.9	3.8	3.5	4.0	3.5	3.5	3.0	2.8	2.6	2.6	2.9	2.9	2.8	3.1
	70대	3.6	3.1	4.0	3.2	6.0	4.5	4.9	4.6	5.4	4.6	4.0	3.4	4.2	4.5	4.6	4.0	5.4
	80대 이상	3.2	1.0	0.0	0.8	4.4	3.4	4.0	1.0	3.4	4.1	1.8	4.4	3.9	3.4	3.1	4.4	5.2
	전체	2.0	1.8	1.7	1.4	1.8	2.0	2.1	2.1	1.9	1.8	1.7	1.7	1.8	1.7	1.8	1.8	2.0
남성	15세~19세	0.6	0.2	0.6	0.3	0.7	0.2	0.7	0.7	1.5	0.3	0.5	0.5	0.3	0.4	1.1	0.6	2.6
	20대	0.9	0.6	0.5	0.5	0.6	0.7	0.8	0.7	0.7	0.5	0.6	0.7	0.7	0.7	0.5	0.5	0.9
	30대	1.3	1.1	1.1	1.0	1.0	1.1	1.2	1.0	1.0	0.8	0.8	0.8	0.9	0.9	1.0	1.2	1.3
	40대	1.8	1.6	1.4	1.5	1.6	1.4	1.4	1.3	1.2	1.5	1.6	1.2	1.0	1.3	1.6	1.4	1.2
	50대	2.9	2.6	2.1	2.0	2.2	2.4	2.3	2.5	2.4	2.2	2.4	2.1	2.0	1.9	2.1	1.8	2.0
	60대	4.1	3.6	3.1	2.6	3.4	4.1	3.8	3.4	3.0	2.9	2.7	2.7	2.8	3.0	2.9	2.7	3.0
	70대	2.6	3.2	2.3	1.7	3.1	3.5	3.5	2.9	3.3	3.8	3.5	3.2	2.9	4.1	4.4	3.7	4.0
	80대 이상	2.1	1.0	0.4	0.0	1.3	2.7	1.9	0.7	2.4	2.1	2.3	0.9	1.9	1.7	3.6	4.3	4.1
	전체	1.9	1.6	1.5	1.4	1.6	1.7	1.7	1.7	1.6	1.6	1.6	1.5	1.4	1.6	1.7	1.6	1.8
전체	15세~19세	0.6	0.6	0.6	0.5	1.1	0.7	0.8	0.7	1.0	0.6	0.7	1.3	0.8	0.6	1.0	1.3	2.5
	20대	0.9	0.7	0.6	0.5	0.7	0.9	0.9	1.0	0.9	0.7	0.8	0.8	0.8	0.9	0.8	0.7	1.0
	30대	1.4	1.2	1.1	0.9	1.1	1.3	1.2	1.1	1.0	0.9	0.9	0.8	0.9	0.9	1.1	1.2	1.3
	40대	2.0	1.7	1.7	1.5	1.7	1.8	1.6	1.7	1.5	1.6	1.7	1.4	1.3	1.3	1.5	1.4	1.4
	50대	2.7	2.5	2.0	1.9	2.2	2.3	2.4	2.6	2.3	2.3	2.2	2.2	2.1	2.0	2.1	2.0	2.0
	60대	4.3	3.7	3.2	2.7	3.6	3.8	3.9	3.5	3.2	3.0	2.7	2.6	2.7	2.9	2.9	2.7	3.0
	70대	3.0	3.1	3.1	2.4	4.4	3.9	4.2	3.7	4.3	4.2	3.7	3.3	3.5	4.3	4.5	3.8	4.7
	80대 이상	2.6	1.0	0.3	0.3	2.6	3.0	3.0	0.8	2.9	3.1	2.1	2.5	2.9	2.6	3.3	4.3	4.6
	전체	1.9	1.7	1.5	1.4	1.7	1.9	1.9	1.8	1.7	1.7	1.7	1.6	1.6	1.6	1.8	1.7	1.9

[부표 2] 성별/혼인여부별 부업하는 취업자의 비율

성별	연령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기혼	2.4	2.1	2.0	1.6	2.2	2.3	2.3	2.4	2.2	2.0	2.0	2.0	2.1	2.0	2.1	2.1	2.3
	미혼	0.9	0.9	0.7	0.6	0.8	1.2	1.2	1.1	1.0	1.0	1.0	0.9	0.9	1.1	1.1	1.0	1.2
	전체	2.0	1.8	1.7	1.4	1.8	2.0	2.1	2.1	1.9	1.8	1.7	1.7	1.8	1.7	1.8	1.8	2.0
남성	기혼	2.1	1.9	1.7	1.5	1.8	1.9	1.9	1.8	1.7	1.7	1.8	1.6	1.6	1.8	2.0	1.8	2.0
	미혼	1.0	0.8	0.7	0.8	1.0	1.0	1.0	1.0	1.1	1.0	1.1	0.9	1.0	0.9	0.9	1.1	1.2
	전체	1.9	1.6	1.5	1.4	1.6	1.7	1.7	1.7	1.6	1.6	1.6	1.5	1.4	1.6	1.7	1.6	1.8
전체	기혼	2.2	2.0	1.8	1.6	1.9	2.1	2.1	2.1	1.9	1.9	1.9	1.8	1.8	1.9	2.0	1.9	2.1
	미혼	1.0	0.8	0.7	0.7	0.9	1.1	1.1	1.0	1.1	1.0	1.0	0.9	0.9	1.0	1.0	1.1	1.2
	전체	1.9	1.7	1.5	1.4	1.7	1.9	1.9	1.8	1.7	1.7	1.7	1.6	1.6	1.6	1.8	1.7	1.9

[부표 3] 성별/교육수준별 부업하는 취업자의 비율

성별	연령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중졸이하	3.1	2.8	2.7	2.4	3.3	3.1	3.5	3.3	3.3	3.1	2.9	2.7	2.8	3.0	3.2	3.3	4.1
	고졸	1.7	1.4	1.3	0.9	1.4	1.7	1.6	1.7	1.5	1.4	1.5	1.5	1.6	1.4	1.6	1.7	1.6
	초대졸이상	1.4	1.2	1.2	1.0	1.2	1.5	1.5	1.7	1.5	1.4	1.4	1.4	1.5	1.5	1.5	1.3	1.6
	전체	2.0	1.8	1.7	1.4	1.8	2.0	2.1	2.1	1.9	1.8	1.7	1.7	1.8	1.7	1.8	1.8	2.0
남성	중졸이하	3.4	3.2	2.7	2.6	3.4	3.5	3.7	3.5	3.3	3.3	3.2	2.8	3.0	3.3	3.2	2.9	3.3
	고졸	1.5	1.4	1.3	1.2	1.4	1.5	1.6	1.6	1.6	1.5	1.5	1.4	1.3	1.4	1.7	1.6	1.7
	초대졸이상	1.4	1.2	1.1	1.0	1.1	1.2	1.1	1.1	1.1	1.2	1.3	1.2	1.2	1.3	1.4	1.4	1.6
	전체	1.9	1.6	1.5	1.4	1.6	1.7	1.7	1.7	1.6	1.6	1.6	1.5	1.4	1.6	1.7	1.6	1.8
전체	중졸이하	3.3	3.0	2.7	2.5	3.4	3.3	3.6	3.4	3.3	3.2	3.0	2.8	2.9	3.1	3.2	3.1	3.7
	고졸	1.6	1.4	1.3	1.1	1.4	1.6	1.6	1.6	1.5	1.4	1.5	1.5	1.4	1.4	1.6	1.6	1.6
	초대졸이상	1.4	1.2	1.1	1.0	1.1	1.3	1.2	1.3	1.2	1.3	1.3	1.3	1.3	1.4	1.4	1.4	1.6
	전체	1.9	1.7	1.5	1.4	1.7	1.9	1.9	1.8	1.7	1.7	1.7	1.6	1.6	1.6	1.8	1.7	1.9